

만 원의 기쁨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내건 모금 운동 표어다. 흥분에 따르면, 1차 목표치가 1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동상을 만들고 동시에 컨벤션 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1차 목표치가 100억이라고 하니, 2차나 3차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내건 구호같이 만 원을 통해 100억을 모금하려면, 백만 명이 참여해야 한다. 최근에는 흥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려고 힘 쓰고 있다.

박정희 동상 모금 운동 표어

사람 사는 세상은 먹고사는 문제가 늘 삶과 정치의 머리맡 근린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민생놀이를 외면하고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에게 도둑이포 같은 실망을 안겼다. 특징인에 대한 동상 건립은 정치적인 성법이 작동한다. 대다수 국민이 존경하고 기릴 만한 인물의 동상을 세우면 문제없지만, 특정한 정권의 이념을 공고히 하려는 차원에서 행하면 탈이 난다. 동상을 세운 게 아니라, 문제 덩어리를 세운 꼴이 된다.

특정한 정권을 기리며 세운 기념비나 동상이 험한 일이 당한 일이

전라포럼 >>>



최재선 한일장신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만 원의 기쁨

한두 번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동상과 기념물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공통점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탈취했다. 5·16과 12·12 사태는 한 개인의 권력 욕망을 채우려고 국가를 모반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들춰봐도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와 답을 높이 쌓았다.

선거철만 되면 죽은 박정희가 부활한다. 세 살 먹은 아이만 빼고 박정희 큰딸이 박근혜라는 사실을 거의 알 것이다. 박근혜는 탄핵당해 감옥살이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정치적 교주와 같은 인물이다. 정치적 성법이 복잡하게 얽힌 세력은 선거판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시민이 주도

하여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웬지 방귀가 자주 나오는 기분이다. 방귀가 잦다면, 언젠가 큰일 불 일이 생긴다.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 남긴 공과를 따질 때, 유일한 공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이면에는 권력을 동원하여 성장을 위주로 한 경제 정책을 펼쳐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당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민주 인사를 탄압하거나 고문으로 죽였다. 기업인에게는 뒷구멍으로 정치자금을 긁어모았다. 역사는 칼로 정권을 잡은 자는 칼로 정권을 내준다고 가르친다. 박정희는 총으로 잡은 정권을 부하의 총에 맞고 내려놓았다. 이 틀을 놓치지 않고 전두환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총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것밖에 더

있었겠는가.

얼마 전, 하동 악양에 다녀왔다. 문학적 상상력이 고갈되거나 역마살이 느닷없이 발동하면 콧바람이라도 쐬려고 나선다. 최참관택을 한 행비 돌아보고 박경리 문학관에 들렀다. 박경리 문학관은 통영에도 있다. 문학과 앞마당에 있는 동상 앞에서 자질로 허리를 낮췄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

우리 문학사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눈부시다. 문학적 공간을 토대로 만든 최참관택은 한 작家的 문학적 유산을 넘어 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국인치고 박경리 동상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만 원이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지금은 비싼 카페의 커피 한 잔 값쯤 된다. 돈은 많음과 적음을 떠나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기분 상하기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내건 '만 원의 기쁨'이란 표어를 눈여겨본다. 밥을 먹다 돌을 씹는 것처럼 기분이 구겨지는 것은 지나친 편견일까.

사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대책 강화해야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 쉼터'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쉼터를 이용하려 해도 수용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가피한 장거리 배정 등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는 예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취재 결과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고된 가출 건수는 3,803건에 달했지만, 이들이 지친 몸을 쉬고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쉼터는 전주 3곳, 군산 2곳, 익산 1곳 등 6곳으로 수용 인원은 52명에 불과했다. 청소년 쉼터가 대상자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 해도 가정 밖 청소년이 규모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규모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실제 전주지역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지역에 쉼터가 없는 정읍이나 남원에서 입소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긴 통학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쉼터 부족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금전적 피해나 성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실제 지난 17

일 광주에서 실종된 10대 여학생이 경기도 이전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광주 경찰은 이 여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한 남성을 실종이동범 위반 혐의로 입건, 총격을 주기도 했다.

청소년쉼터는 학교나 학업 적응에 힘들어하거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위기의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생활 보호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을 떠돌고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혼자선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은 물론 담당 의식주를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으니 이견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정 밖 청소년 통계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실종신고 등이 이어 집계된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이들이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지속돼선 안 된다. 쉼터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는 물론 담당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적인 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성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도민 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 실행에 나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헛 정책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12월에 전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도 청사내에 일회용품 반입금지, 커피매장·편의점·문구점 등에서 일회용품 판매와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또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화용기를 사용하도록 도내 커피전문점 70곳, 장례식장 6곳, 지역축제와 행사장 18곳 등에 국·도비 12억원씩을 지원,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해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북도의 일회용품 감축 대책은 도민들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기업과 민간 단체들이 동참하는 등 도민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우선이 돼야 한다.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규모나 대상이 한정돼 있고 위생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드러나 확대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기 위해 대체품으로 생산된 종이 빨대가 도리어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비자와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도내 플라스틱 배출량이 지난 2021년 8만6천톤에서 2022년에 10만5천톤으로 1년만에 22%가 늘어나 도민 전체가 하루에 57.3톤, 연간 2만9천톤의 일회용품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급한 실정이다.

국내 일회용품 규제는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해제됐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한 이후 환경부가 2023년 11월, 식당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면서 오라가라 정책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지구촌 생생 리포트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의혹에 사임 검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부인의 부패 의혹에 맞서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과 아내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총리직 수행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주까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취를 고민한 뒤 오는 29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드리드 법원은 극우 성향의 입력단체 '미노스 립피아스'(깨끗한 손)의 고소에 따라 산체스 총리의 부인인 베고냐 고메스에 대해 제기한 독직과 부패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랑밭 새벽편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은 행운을 꿈꾸며 금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산을 파헤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과 곡괭이는 닳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기쁨도 잠시, 금광의 존재를 들킬 것을 우려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광산으로 돌아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금을 발견했다 보군요! 저희도 그곳으로 데려가 주면 안 되겠소?"

금광을 발견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금광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기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금이라니요? 무엇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온 당신들의 얼굴에 희망과 설렘이 가득하니 그것이 금광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겠소."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 희망과 용기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정원은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의 인생도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필진 칼럼과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全羅日報 1994년 6월8일 창간(일간) 1994.5.23 등록번호 전북 가00003
www.jeilailbo.com

회장: 柳春澤 사장·발행·편집인: 柳現植 논설실장: 劉承烈 편집국장: 蘇文冠

대표전화 232-3131 (우)5500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전동) 인쇄인: 김영석

총무국 287-2700	익산본부 858-9923	진안지사 433-3000
광고부 231-8888	정읍본실 532-8780	장수지사 352-0325
FAX 285-2679	남원본실 633-8357	임실지사 642-1800
판매부 282-7853	김제지사 545-4688	순창지사 653-0444
논설위원실 287-2704	완주본실 243-4011	고창지사 564-7900
군산본부 442-2233	무주지사 324-1103	부안지사 580-414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부 700원

엘니뇨 동태평양인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도 상승 현상이다. 엘니뇨는 에스파냐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라고 한다. 보통 이 현상이 12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과학자인 야콥 비야크니스는 엘니뇨에 대해 태평양 적도 지역의 기압이 동부와 서부 지역 사이에서 일진일퇴하는 변화로 설명했다. 동·서태평양 사이 기압차가 발생하면 무역풍을 약화시키고 대기의 변화와 해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다 표면 온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

엘니뇨 반대는 라니냐 동태평양 해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는 때로는 엘니뇨가 때로는 라니냐가 발생하며 일종의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이다.

엘니뇨에 따른 피해는 광범하다. 어업 피해에서부터 가뭄이나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 몇 가지 피해 사례를 보면 이 자연 현상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다.

1982~1983년 엘니뇨는 에콰도르에 홍수를 가져와 600여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1998년에 닥친 엘니뇨로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뭄이 강타했으며 인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약 2천5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밖에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엘니뇨로 인해 대형 산불과 홍작과 같은 재앙을 겪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닥친 엘니뇨 역시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달 들어 동남아시아가 이미 40도를 넘는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필리핀은 최고 51도의 살인적 더위가 덮친다는 예보다. 태국에서도 최고 기온이 44도를 넘을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다. 심지어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는 2084년 태국 북부 지역 기온이 평균 50도를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 예측까지 제시됐다.

물론 이런 폭염은 엘니뇨 탓만은 아니다. 지구 온난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지만 엘니뇨가 지구 온도를 약 0.2도나 올린다는 게 정설이다. 엘니뇨 세력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지난 3월 전 세계 기온 평균이 14.14도로 세계 관측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기후 위기는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됐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연구소 개빈 슈미트 소장은 "만약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북대서양이나 다른 곳에서 기록적 고온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도국이 대부분인 동남아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기후 비상사태(emergency)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엘니뇨와 온난화

湖南第一門



그래픽 생생 뉴스
기업 체감 경기 두달 연속 상승